

# 보도자료

2014년 2월 3일 전북 2014 - 10호

이 자료는 2월 4일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2월 3일 12:00 이후부터 취급 가능

제 목 : 전북지역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과 평가

“붙임 참조”

문의처 : 전북본부 기획조사팀 과장 박의성

Tel : 250-4083 Fax : 250-4099 E-mail : jeonbuk@bok.or.kr

“한국은행 전북본부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서 지역본부-전북본부로  
접속)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 전북지역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과 평가

2014. 1

이 자료내용은 작성자의 개인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작성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작성자> 과장 박의성, 조사역 신영석

# 차 례

## < 요약 >

I. 전북지역 금융기관 가계대출 동향 ..... 1

II.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 .....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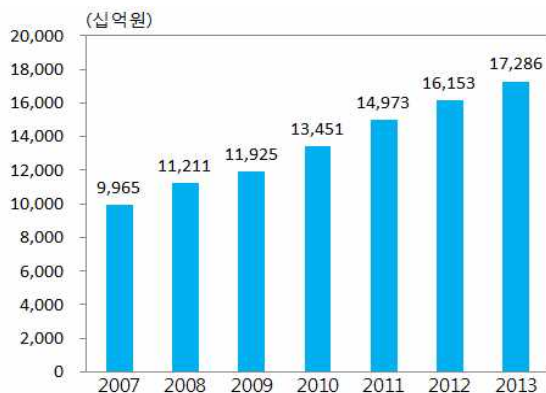
III. 종합평가 및 지역금융안정을 위한 제언 ..... 10

## < 요약 >

### I. 전북지역 금융기관 가계대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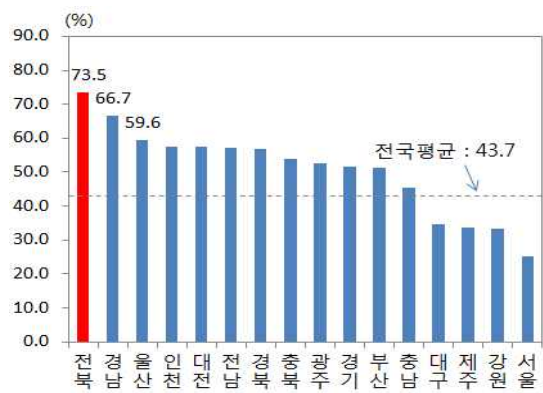
- 전북지역 금융기관(예금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2007년말 10.0조원에서 2013. 11월말 현재 17.3조원으로 6년여 동안 73.5% 증가(연평균 증가율 : 9.8%)
  - 다른 지역과 비교할 경우 전북지역의 가계대출 증가율(누적 기준)은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중 가장 높은 수준

**전북지역 가계대출 잔액 추이<sup>1)</sup>**



주 : 1) 기말 기준, 2013년은 11월말 기준  
 자료 : 한국은행

**지역별 가계대출 증가율<sup>1)</sup>**



주 : 1) 2007년말대비 2013. 11월말의 누적 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 금융기관별로는 2007년말 ~ 2013. 11월말 기간 중 누적 기준으로 예금은행이 43.6% 늘어난 데 반해 비은행기관은 114.6% 증가

**전북지역 금융기관별 가계대출 추이<sup>1)</sup>**

	07년말	08년말	09년말	10년말	11년말	12년말	13.11월말
예금은행	5,774	6,063	6,133	6,552	7,039	7,573	8,291
비은행	4,191	5,149	5,792	6,900	7,934	8,580	8,995
	<->	<〃>	<6.2>	<13.5>	<21.9>	<31.2>	<43.6>
	<->	<〃>	<38.2>	<64.6>	<89.3>	<104.7>	<114.6>

주 : 1) 기말 잔액 기준      2) < >내는 2007년말대비 누적 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 대출종류별로는 같은 기간 중 주택담보대출은 110.8%, 기타대출은 46.7% 증가하여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율이 높은 모습을 보임

### 전북지역 금융기관의 대출종류별 가계대출 추이<sup>1)</sup>

(십억원, %)

	07년말	08년말	09년말	10년말	11년말	12년말	13.11월말
주택 담보	4,163 <->	4,765 <〃>	5,496 <32.0>	6,377 <53.2>	7,448 <78.9>	8,191 <96.8>	8,776 <110.8>
기타	5,803 <->	6,447 <〃>	6,429 <10.8>	7,074 <21.9>	7,525 <29.7>	7,962 <37.2>	8,510 <46.7>

주 : 1) 기말 잔액 기준      2) < >내는 2007년말대비 누적 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 II.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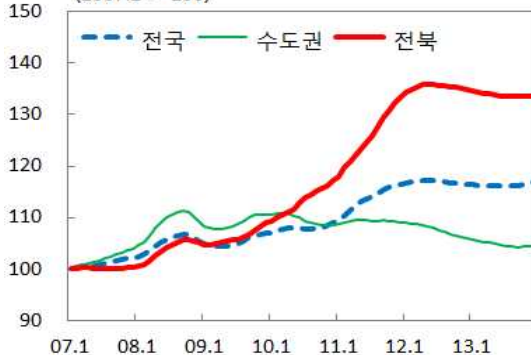
㉠ (주택거래자금 수요 확대) 도내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주택매매를 위한 자금수요가 확대된 데다 2011년 이후에는 아파트 등 주거용건설이 늘어나며 중도금 납입 등을 위한 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

- 전북지역 주택가격은 2007년 ~ 2012. 상반기 중 33.8% 올라 전국평균 (17.2%)을 크게 상회

- 2011년 이후에는 전주서부신시가지, 혁신도시 등의 주택건설이 활발해지면서 2007년 ~ 2010년중 연평균 70만m<sup>2</sup> 정도에 그치던 주거용 건축 착공면적이 약 170만m<sup>2</sup>(2011년 ~ 2013년 연평균)로 크게 증가

### 주택매매가격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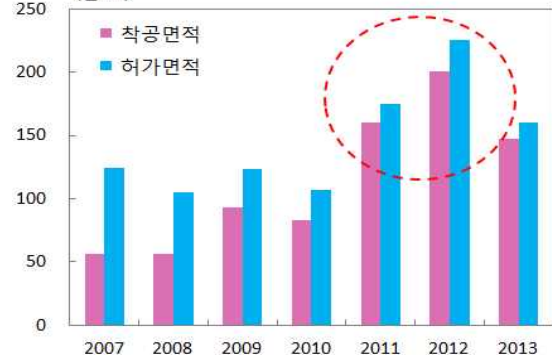
(2007.1 = 100)



자료 : 국민은행

### 전북지역 주거용 건축 허가·착공 추이<sup>1)</sup>

(만m<sup>2</sup>)



주 : 해당연도 11월까지의 누적  
 자료 : 국토해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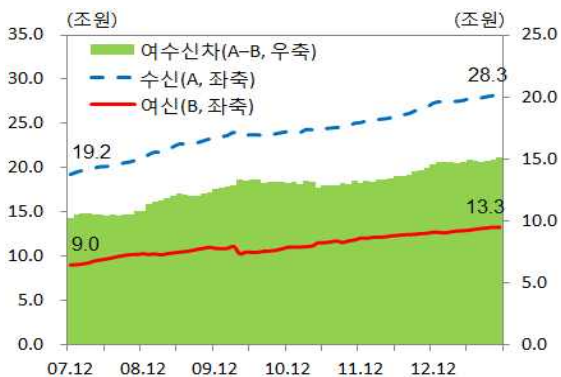
② **(생계자금 조달)**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 특성상 경기부진이 지속되면서 영세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생계자금 대출수요가 꾸준히 발생했을 가능성

- 전북지역 가구의 연간소득은 2012년 기준 3,851만원으로 제주(3,616만원), 전남(3,811만원)과 함께 하위권에 속함(전국평균 : 4,475만원)
- 도내 일부 예금은행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2007년말~2013. 10월말) 주택 담보대출 잔액 중 생계자금 용도 비중이 기간별로 30~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

③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확대 전략)** 전북의 경우 타지역과 비교하여 금융기관으로 유입된 자금을 운용할 대상 기업체가 적어 지역 금융권에서는 가계대출 취급을 늘리는 전략을 통해 여신 운용처 부족문제의 완화를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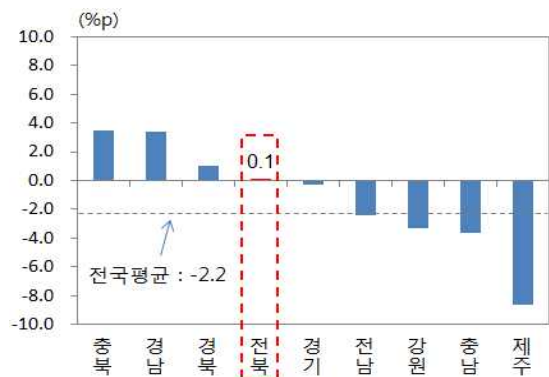
- 2007년말~2013. 11월말 기간 중 도내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증가율은 56.8%로 전국평균(54.7%)과 비슷한 반면 가계대출 증가율(43.6%)은 전국평균(31.5%)을 크게 상회
- 비은행기관(특히 상호금융조합)도 예금은행대비 금리우위, 세제혜택 등에 따라 크게 늘어난 수신고(2007년말 19.2조원 → 2013. 11월말 28.3조원)를 바탕으로 가계대출 신규취급에 적극 나섬

**전북지역 비은행기관 여수신 추이<sup>1)</sup>**



주 : 1) 기말 잔액 기준  
자료 : 한국은행

**지역별 비은행기관 예대출 변화폭<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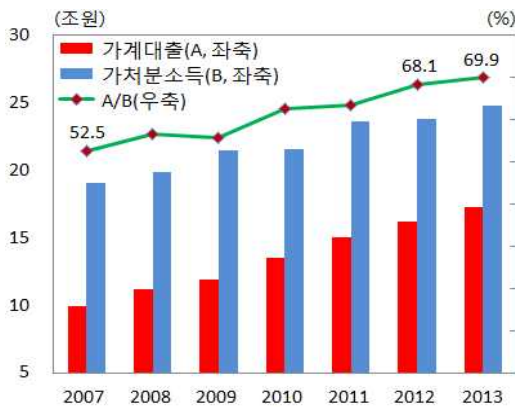


주 : 1) 2013. 11월말 예대출 - 2007년말 예대출  
자료 : 한국은행

### Ⅲ. 종합평가 및 지역금융안정을 위한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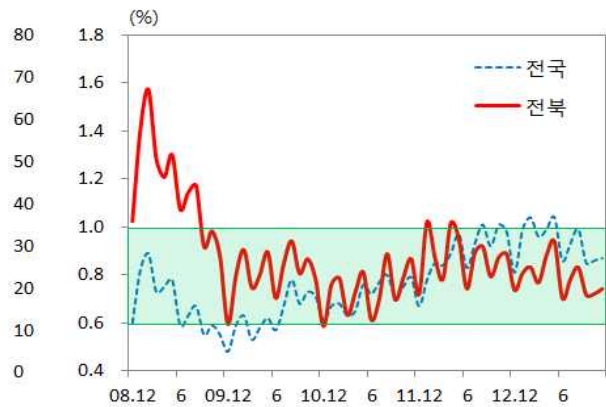
- 전북지역은 소득보다 가계대출의 증가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 가처분 소득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높아진 가운데 1인당 대출규모도 900만원 대에 육박하고 있으나, 2012년 중반 이후 기준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이자부담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연체율도 안정적으로 유지 되는 등 아직까지 지역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파악

전북지역 1인당<sup>1)</sup> 가계대출 추이<sup>2)</sup>



주 : 1) 주민등록인구 기준  
2) 2013년은 11월말 기준  
자료 : 한국은행, 안전행정부

전국과 전북의 가계대출 연체율 추이<sup>1)2)</sup>



주 : 1) 예금은행 기준  
2) 1일 이상 원금 연체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 다만 내수경기 회복 지연 및 부동산경기 부진 장기화시 대출금 상환 능력 저하(가계), 담보가치 하락(금융기관) 등으로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
- 가계와 금융기관은 무리한 대출을 자제하고 중장기적으로 금리인상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출구조 개선 노력을 병행하는 한편 지자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의 소득 여건 개선에 주력

## I.

### 전북지역 금융기관 가계대출 동향

#### (개 황)

- 전북지역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2007년말 10.0조원에서 2013. 11월말 현재 17.3조원으로 6년여 동안 73.5% 증가(연평균 증가율 : 9.8%)

\* 예금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탁·우체국예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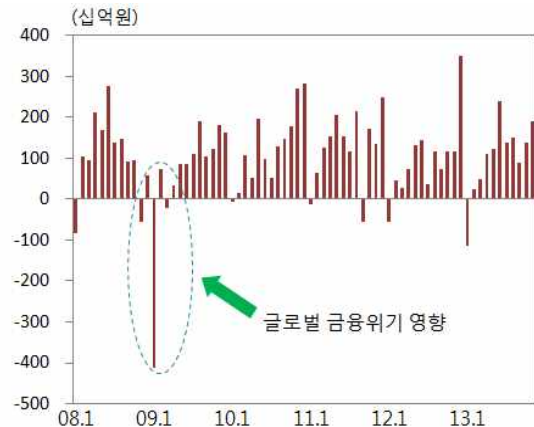
-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았던 2008년말 ~ 2009년초 기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월 가계대출 잔액이 증가

#### 전북지역 가계대출 잔액 추이<sup>1)</sup>



주 : 1) 기말 기준, 2013년은 11월말 기준  
자료 : 한국은행

#### 월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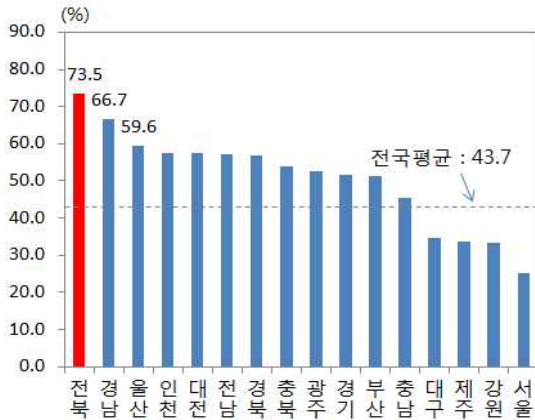
- 다른 지역과 비교할 경우 전북지역의 가계대출 증가율(누적 기준)은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전국평균(43.7%)을 크게 상회\*

\* 전북 다음으로는 경남(66.7%), 울산(59.6%), 인천(57.7%), 대전(57.6%) 등의 순

- 금융위기 영향에서 점차 벗어난 2009년 하반기 이후부터 전국과의 증가율 격차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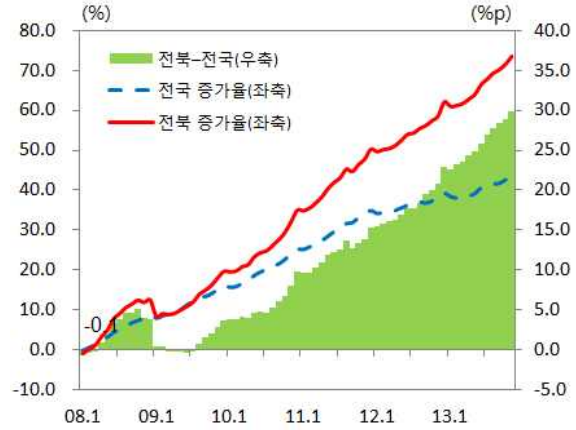
### 지역별 가계대출 증가율<sup>1)</sup>



주 : 1) 2007년말대비 2013. 11월말의 누적 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 전국과 전북의 가계대출 증가율<sup>1)</sup>



주 : 1) 2007년말대비 해당월의 누적 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 연도별 지역별 가계대출 증가율 순위를 보면 2013년을 제외하고는 줄곧 5위 이내의 상위권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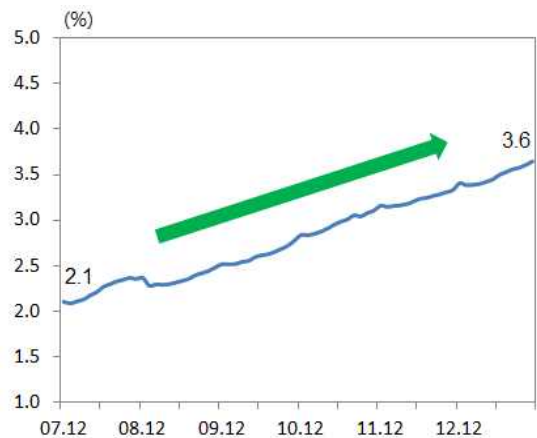
- 타지역보다 급속한 가계대출 증가에 기인하여 국내 전체 가계대출 중 전북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말 2.1%에서 2013. 11월말 3.6%로 크게 상승

### 연도별 지역별 가계대출 증가율<sup>1)</sup> 순위

순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	충남	경기	인천	경남	경남	경남
2	<b>전북</b>	인천	<b>전북</b>	대전	울산	경북
3	경기	충남	전남	부산	충북	제주
4	경북	<b>전북</b>	대전	울산	대구	울산
5	울산	전남	부산	<b>전북</b>	<b>전북</b>	대전
6	충북	서울	경남	전남	경북	대구
7	광주	광주	광주	인천	부산	<b>전북</b>
8	인천	대전	경북	광주	전남	부산
⋮	⋮	⋮	⋮	⋮	⋮	⋮
15	제주	강원	서울	강원	서울	서울
16	대구	제주	울산	서울	충남	인천

주 : 1) 해당연도의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 전북의 전국대비 월별 가계대출 비중 추이



자료 : 한국은행

## (금융기관별)

- 전북지역의 가계대출을 금융기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07년말 ~ 2013. 11월말 기간 중 누적 기준으로 예금은행이 43.6% 늘어난 데 반해 비은행기관은 114.6% 증가하여 비은행기관의 증가속도가 예금은행에 비해 2배 이상 빠른 편

### 전북지역 금융기관별 가계대출 추이<sup>1)</sup>

(십억원, %)

	07년말	08년말	09년말	10년말	11년말	12년말	13.11월말
예금은행	5,774 (-) <->	6,063 (5.0) <〃>	6,133 (1.2) <6.2>	6,552 (6.8) <13.5>	7,039 (7.4) <21.9>	7,573 (7.6) <31.2>	8,291 (12.4) <43.6>
비은행	4,191 (-) <->	5,149 (22.8) <〃>	5,792 (12.5) <38.2>	6,900 (19.1) <64.6>	7,934 (15.0) <89.3>	8,580 (8.2) <104.7>	8,995 (6.7) <1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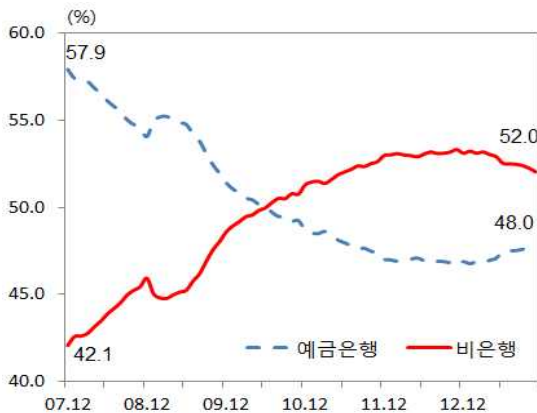
주 : 1) 기말 잔액 기준

2) ( )내는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 >내는 2007년말대비 누적 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 이에 따라 도내 가계대출 중 예금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말 57.9%에서 2013. 11월말 48.0%로 하락한 반면 비은행기관은 같은 기간 중 42.1%에서 52.0%로 상승
- 비은행기관 중에서는 특히 신탁(+116.5%), 상호금융(+119.0%), 새마을금고(+357.9%) 등 상호금융조합의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

### 금융기관별 가계대출 비중 추이



자료 : 한국은행

### 비은행기관별 가계대출 증가 현황

(십억원, %)

	07년말	13.11월말	증가율
저축은행	524	203	-61.3
신탁	752	1,628	116.5
상호금융	2,494	5,462	119.0
새마을	361	1,655	357.9
기타 <sup>1)</sup>	60	47	-20.6

주 : 1) 신탁 및 우체국예금

자료 : 한국은행

**(대출종류별)**

□ 대출종류별로는 같은 기간 중 주택담보대출은 110.8%, 기타대출\*은 46.7% 증가하여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율이 높은 모습을 보임

\* 마이너스통장 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가계대출

**전북지역 금융기관의 대출종류별 가계대출 추이<sup>1)</sup>**

(십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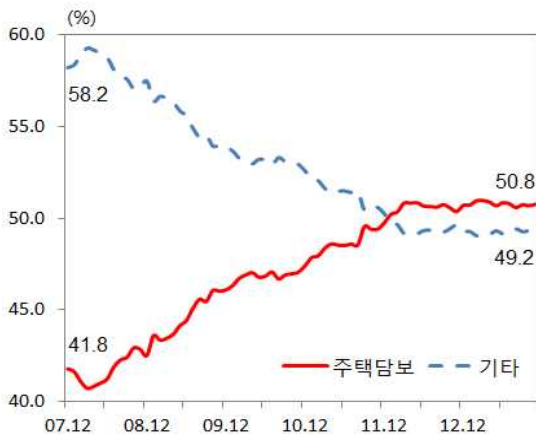
	07년말	08년말	09년말	10년말	11년말	12년말	13.11월말
주택 담보	4,163 (-) <->	4,765 (14.5) <〃>	5,496 (15.3) <32.0>	6,377 (16.0) <53.2>	7,448 (16.8) <78.9>	8,191 (10.0) <96.8>	8,776 (10.3) <110.8>
기타	5,803 (-) <->	6,447 (11.1) <〃>	6,429 (-0.3) <10.8>	7,074 (10.0) <21.9>	7,525 (6.4) <29.7>	7,962 (5.8) <37.2>	8,510 (8.5) <46.7>

주 : 1) 기말 잔액 기준  
 2) ( )내는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 >내는 2007년말대비 누적 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 이에 따라 도내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말 41.9%에서 2013. 11월말 50.8%로 상승(기타대출 : 58.2% → 49.2%)

- 예금은행 및 비은행기관 모두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기타대출 증가율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

**대출종류별 가계대출 비중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금융기관별 대출종류별 가계대출 증가 현황**

(십억원, %)

		07년말	13.11월말	증가율
예 금 은 행	주택 담보	2,762	4,650	68.4
	기타	3,012	3,641	20.9
비 은 행	주택 담보	1,401	4,126	194.5
	기타	2,790	4,869	74.5

자료 : 한국은행

## II.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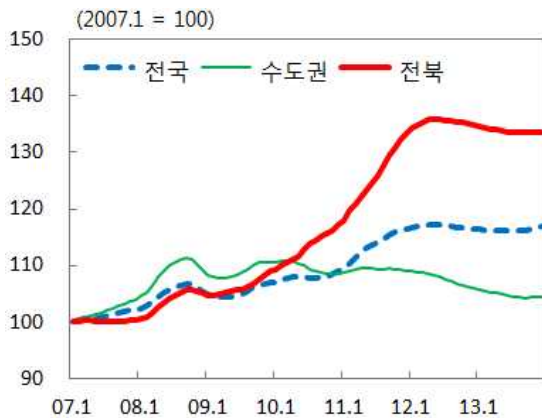
◇ 전북지역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은

자금 수요측면에서 주택가격 상승 및 주거용건설 증가에 따른 주택 자금과 함께 경기부진으로 인한 생계자금 수요가 꾸준히 발생한 데다 자금 공급측면에서는 여신 운용처가 부족한 지역 특성상 금융권(특히 상호금융조합)에서 신용공급 여력을 가계대출 취급 확대에 더욱 집중하였기 때문임

㉠ (주택거래자금 수요 확대) 도내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주택매매를 위한 자금수요가 확대된 데다 2011년 이후에는 아파트 등 주거용건설이 늘어나며 중도금 납입 등을 위한 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

- 전북지역 주택가격은 2007년 ~ 2012. 상반기 중 33.8% 올라 전국평균 (17.2%)을 크게 상회
- 이는 전국 16개 시·도 중 부산(39.9%), 경남(35.1%)에 이어 세 번째에 해당하는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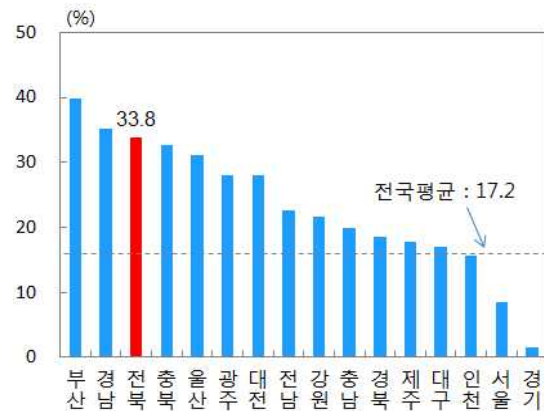
주택매매가격지수 추이



자료 : 국민은행

지역별 주택매매가격 상승률 비교

<2007년~2012. 상반기>



자료 : 국민은행

- 주택가격 상승이 가팔랐던 2008년 ~ 2011년중 주택거래건수가 구매심리 호전으로 많은 모습

**전북지역 주택거래건수 추이**

(천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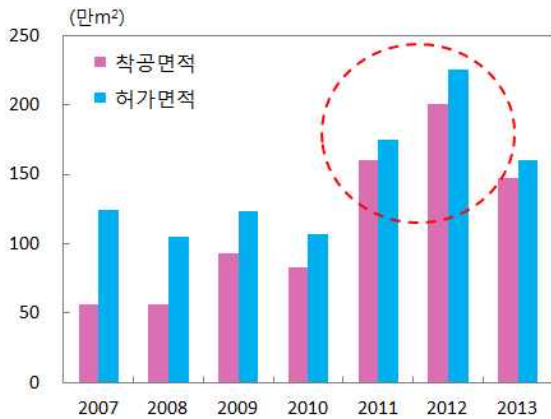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전체 주택	37.6	32.9	47.7	43.2	39.3	44.8	33.0	35.4
(아파트)	31.4	26.9	40.7	36.7	32.3	36.0	24.6	26.7

자료 : 국토해양부

- 2011년 이후에는 전주서부신시가지, 혁신도시 등의 주택건설이 활발해지면서 2007년 ~ 2010년중 연평균 70만m<sup>2</sup> 정도에 그치던 주거용 건축착공면적이 약 170만m<sup>2</sup>(2011년 ~ 2013년 연평균)로 크게 증가

- 아파트 분양물량도 2012년 이후 연간 1만여 호로 확대

**전북지역 주거용 건축 허가·착공 추이<sup>1)</sup>**



주 : 해당연도 11월까지의 누적  
자료 : 국토해양부

**전북지역 아파트 분양물량 추이**



자료 : 부동산114

- ㉒ **(생계자금 조달)**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 특성상 경기부진이 지속되면서 영세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생계자금 대출수요가 꾸준히 발생했을 가능성

- 전북지역 가구의 연간소득은 2012년 기준 3,851만원으로 제주(3,616만원), 전남(3,811만원)과 함께 하위권에 속함(전국평균 : 4,475만원)

- 특히 지역 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높음(전북 : 27.9%, 전국 : 22.5%)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소득(사업소득 기준\*)은 도지역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

\* 자영업자가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

### 지역별 연간 평균 가구소득<sup>1)</sup>

(만원)

	가구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전국	4,475	2,885	1,128	199	262
경기	4,894	3,332	1,096	248	219
강원	3,954	2,180	1,285	183	306
충북	4,103	2,434	1,150	192	326
충남	3,985	2,378	1,204	137	266
전북	3,851	2,238	1,137	129	347
전남	3,811	2,017	1,354	121	319
경북	4,373	2,277	1,665	160	271
경남	4,251	2,692	1,163	148	248
제주	3,616	1,984	1,239	166	226

주 : 1) 2012년 기준

자료 : 통계청 · 금융감독원 · 한국은행 「2013년 가계금융 · 복지조사 결과」

- 실제로 도내 일부 예금은행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2007년말 ~ 2013. 10월말) 주택담보대출 잔액 중 생계자금 용도 비중이 기간별로 30~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

\* 비은행기관은 대출자금 용도 파악이 불가능하나 은행권보다 차주의 신용등급이 낮은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생계자금 목적의 대출이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

### 전북지역 주택담보대출의 용도별 구성비<sup>1)</sup>

(%)

	07년말	08년말	09년말	10년말	11년말	12년말	13.10월말
주택구입	66.9	58.7	54.0	44.0	57.9	60.7	64.8
생계자금	30.5	38.4	41.6	50.2	36.8	34.4	28.6
기 타 <sup>2)</sup>	2.6	2.9	4.4	5.8	5.3	4.9	6.6

주 : 1) 기말 잔액 기준

2) 사업자금, 대출금상환, 주택임대차, 미가입 등

자료 : 일부 예금은행 모니터링 결과

③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확대 전략)** 전북의 경우 타지역과 비교하여 금융기관으로 유입된 자금을 운용할 대상 기업체가 적어 지역 금융권에서는 가계대출 취급을 늘리는 전략을 통해 여신 운용처 부족문제의 완화를 도모

○ 2007년말 ~ 2013. 11월말 기간 중 도내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증가율은 56.8%로 전국평균(54.7%)과 비슷한 반면 가계대출 증가율(43.6%)은 전국평균(31.5%)을 크게 상회

- 이에 따라 예금은행 예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전북지역 예금은행 예대출은 2007년말에 비해 1.6%p 하락하는 데 그침(전국평균 : -19.5%p)

\* 2008. 11월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예대출 지표를 포함하였으며, 2014년 이후에는 예대출 100% 이하를 목표

○ 비은행기관(특히 상호금융조합)도 예금은행대비 금리우위, 세제혜택\* 등에 따라 크게 늘어난 수신고(2007년말 19.2조원 → 2013. 11월말 28.3조원)를 바탕으로 가계대출 신규취급에 적극 나섬

\* 2009년부터 상호금융조합 예탁금에 대해 비과세한도가 확대(2천만원 → 3천만원)되었고 2012년말에는 비과세 적용기한도 연장(2009년말 → 2015년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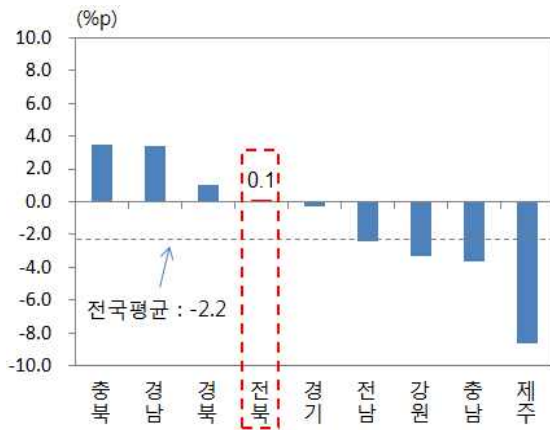
- 수신의 큰 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7년말과 비교한 2013. 11월말의 도내 비은행기관 예대출은 0.1%p 상승하여 다른 지역이 대체로 하락세를 보인 것과 대조를 이룸(전국평균 : -2.2%p)

### 전북지역 비은행기관 여수신 추이<sup>1)</sup>



주 : 1) 기말 잔액 기준  
 자료 : 한국은행

### 지역별 비은행기관 예대율 변화폭<sup>1)</sup>



주 : 1) 2013. 11월말 예대율 - 2007년말 예대율  
 자료 : 한국은행

- 특히 비은행기관이 여신 운용처로 가계대출 취급을 확대함에 따라 동 기관의 총여신 중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말 46.6%에서 2013. 11월말 67.8%로 상승(예금은행은 39.3%에서 36.8%로 소폭 하락)

■ 비은행기관 총여신 증가의 가계대출 기여율은 112.6%로 100%를 상회

### 전북지역 금융기관별 총여신 중 가계대출 비중 추이



자료 : 한국은행

### 전북지역 금융기관별 총여신 증가율과 가계대출 증가율 비교

		(십억원, %)		
		07년말	13.11월말	증가율 <sup>1)</sup>
은행	총여신	14,687	22,529	53.4
	가계대출	5,774	8,291	43.6 <32.1>
비은행	총여신	8,999	13,265	47.4
	가계대출	4,191	8,995	114.6 <112.6>

주 : 1) < >내는 총여신 증가에 대한 가계대출 증가의 기여율  
 자료 : 한국은행



### Ⅲ.

### 종합평가 및 지역금융안정을 위한 제언

- ◇ 전북지역은 소득보다 가계대출의 증가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 가처분 소득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높아진 가운데 1인당 대출규모도 900만원 대에 육박하고 있으나, 2012년 중반 이후 기준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이자부담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연체율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아직까지 지역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파악
- ◇ 다만 내수경기 회복 지연 및 부동산경기 부진 장기화시 대출금 상환 능력 저하(가계), 담보가치 하락(금융기관) 등으로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
  -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금리인상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출구조 개선 노력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

### 종합평가

㉠ (소득보다 빠른 대출 증가속도)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가계 대출의 증가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짐

- 2007~12년중 도내 가처분소득이 연평균 4.6% 늘어난 데 반해 가계대출은 10.1%(2013. 11월말까지의 평균 증가율은 9.8%) 증가함에 따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도 2007년말 52.5%에서 2013. 11월말 69.9%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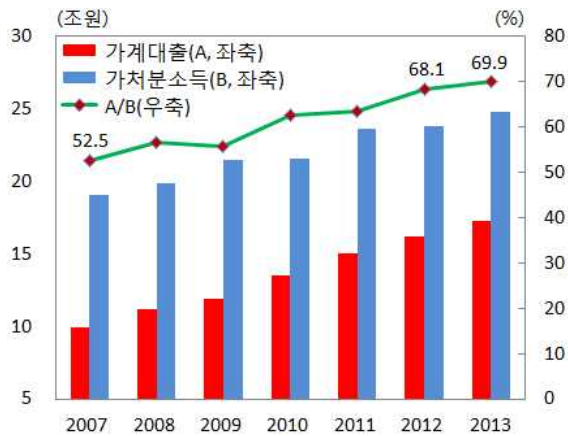
- 소득의 증가속도\*는 다른 지역보다 느리고 가계대출 증가속도는 다른 지역보다 빠름에 따라 도내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2012년부터 도지역 평균(경기도 제외)을 상회하기 시작

\* 2007~12년중 가처분소득 연평균 증가율 : 8개도 4.9% > 전북 4.6%  
ㄱ 가 계 대 출 연평균 증가율 : 8개도 6.8% < 전북 10.1%

- 지역별로 보면 2013. 11월말 현재 8개도 중에서 경남(77.8%), 충남(75.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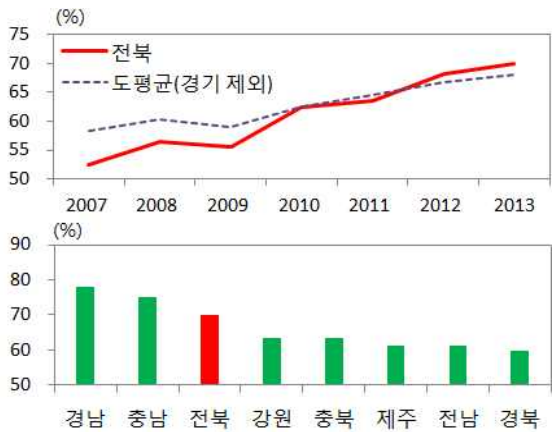
\* 다만 대출규모가 큰 수도권(103.6%) 효과로 인해 전국평균(87.7%)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 전북지역 가처분소득<sup>1)</sup> 및 가계대출<sup>2)</sup> 추이



주 : 1) 2013년은 2000~12년중 연평균 증가율(기하평균)을 이용하여 추정  
 2) 기말 기준, 2013년은 11월말 기준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 도별 가처분소득<sup>1)</sup>대비 가계대출 비율<sup>2)</sup>



주 : 1) 2013년은 2000~12년중 연평균 증가율(기하평균)을 이용하여 추정  
 2) 기말 기준, 상단 그래프의 2013년 가계대출 수치 및 하단 그래프의 지역별 수치는 2013. 11월말 기준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 ㉔ (1인당 대출규모도 크게 증가) 전북지역 도민 1인당 대출규모도 2007년 이후 계속 늘어나 2013. 11월말 현재 900만원을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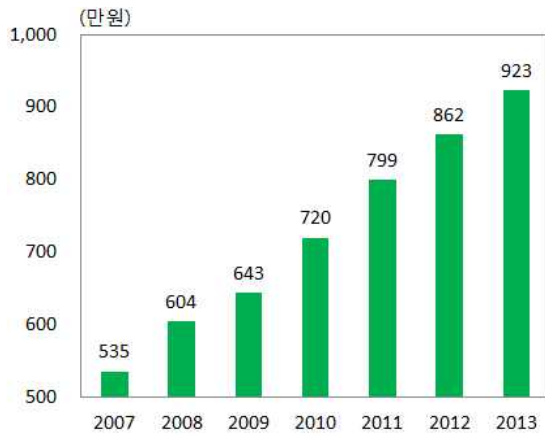
- 전북지역 도민 1인당 가계대출 규모는 2007년 535만원에서 2013. 11월말 923만원으로 크게 증가

- 도지역 평균(경기도 제외)과의 격차도 2007년말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2013. 11월말 현재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보면 1인당 가계대출 규모(2013. 11월말 기준)는 충남(1,104만원), 경남(1,103만원), 전북(923만원), 충북(880만원) 등의 순\*

\* 수도권(1,662만원) 효과로 인해 전국평균(1,332만원)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 전북지역 1인당<sup>1)</sup> 가계대출 추이<sup>2)</sup>



주 : 1) 주민등록인구 기준  
2) 2013년은 11월말 기준  
자료 : 한국은행, 안전행정부

### 도별 1인당<sup>1)</sup> 가계대출 추이<sup>2)</sup>



주 : 1) 주민등록인구 기준  
2) 기말 기준, 상단 그래프의 2013년 가계대출 수치 및 하단 그래프의 지역별 수치는 2013. 11월말 기준  
자료 : 한국은행, 안전행정부

### ③ (이자부담비율은 하락, 연체율은 안정세 지속)

- 전북지역 가처분소득대비 이자부담비율은 2011년 4.2%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여 2013. 11월말 현재 3.6%에 머물렀다

\* 2012. 7월 ~ 2013. 5월중 세 차례에 걸쳐 0.75%p 인하

### 전북지역 가처분소득<sup>1)</sup>대비 이자부담<sup>2)</sup>비율 추이

(%)

연도	09년말	10년말	11년말	12년말	13.11월말
비율 (%)	3.81	4.07	4.24	4.08	3.61

주 : 1) 2013년은 2000~12년중 연평균 증가율(기하평균)을 이용하여 추정

2) 이자부담 = 은행 이자비용\* + 비은행 이자비용\*\*

\* 은행 이자비용 = 대출종류별(주택담보대출, 기타대출) 대출잔액 × 예금은행 가중평균대출금리

\*\* 비은행 이자비용 = 금융기관별(상호저축은행, 신협,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대출잔액 × 금융기관별 가중평균대출금리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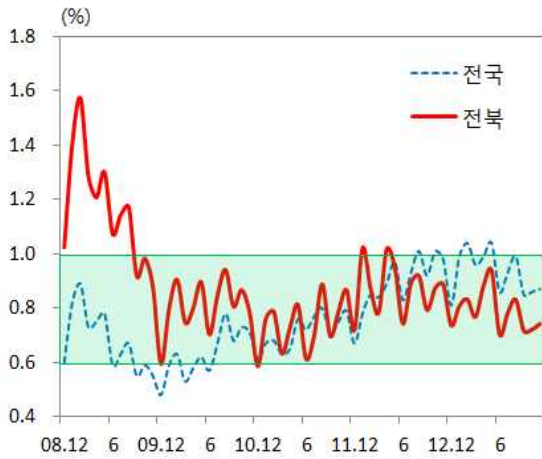
- 전국의 예금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이 2010년 이후 다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전북은 뚜렷한 상승추세 없이 0.6~1.0%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

\* 단순평균 기준 연체율 : 2010년 0.64% → 2011년 0.72% → 2012년 0.90% → 2013년 (1월~11월) 0.94%

- 카드사, 보험사, 캐피탈사, 대부업 등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를 포괄하는 연체율(A신용평가회사 기준)\*도 전국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긴 하나 2011. 상반기 이전의 5% 수준에서 2013년 이후에는 3% 초반 수준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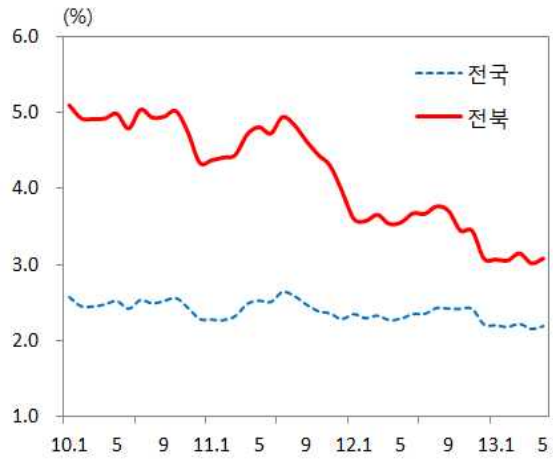
\* 대출을 보유한 차주 중 5일 이상 연체한 차주의 비율

**전국과 전북의 가계대출 연체율 추이<sup>1)2)</sup>**



주 : 1) 예금은행 기준  
2) 1일 이상 원금 연체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전국과 전북의 소금융권 연체율<sup>1)2)</sup>**



주 : 1) 5일 이상 연체 기준  
2) 예금은행 및 비은행기관(카드, 보험, 캐피탈, 대부업 포함)  
자료 : A신용정보회사

## 지역금융안정을 위한 제언

- 전북지역 가계대출이 단기적으로 부실화될 확률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내수경기 회복 지연, 부동산경기 부진 장기화, 금리인상 요인 발생 가능성 등 여러 리스크요인이 내재해 있는 만큼 이에 유의할 필요

### (리스크요인)

- ① 내수경기 회복 지연 또는 부동산경기 부진 장기화\* 시 차주의 대출금 상환능력이 저하되고 금융기관도 담보가치 하락 등으로 부실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

\* 다수의 연구기관에서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 인구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 등에 기인하여 중장기적으로 국내 주택가격의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

- ② 2013. 12월 미연준의 통화정책이 점진적인 양적완화 축소(QE tapering)로 전환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현재의 저금리 기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

- 가계와 금융기관은 무리한 대출을 자제하고 대출구조 개선 노력을 병행하는 한편 지자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의 소득여건 개선에 주력

### (대응방안)

- ① 가계는 중장기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대출을 받고 금융기관들도 지나친 가계대출 취급 확대 정책을 지양
- ② 향후 금리인상 등에 대비하여 가계나 금융기관 모두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확대하고 대출금 상환은 일시상환보다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는 등 가계대출 구조개선 노력을 병행\*

\* 2012. 6월말 기준 도내 5개 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의 가계대출 잔액 중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87%, 주택담보대출 잔액 중 만기일시상환 비중은 45.3%임

- ③ 지자체에서는 우량 기업의 지속적인 유치와 산업기반 확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협동조합 활성화 등으로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의 소득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